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 (1797-1839)



동정 순교자 정정혜는 정약중(丁若鍾)의 딸로서 네 살 때 세례성사를 받았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온 가족이 체포되었을 때, 아버지와 이복 오빠 정철상(丁哲祥)은 순교하였고, 정정혜는 어머니 유 체칠리아와 오빠 정하상(丁夏祥)과 함께 석방되었다. 그 뒤 마재에 살던 삼촌 정약용(丁若鏞)의 집에서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친척들의 구박과 냉대를 아름다운 덕행과 인내로 이겨낸 그는 나중에 박대하던 몇몇 친척들까지 입교시켰다.

기해박해가 일어난 1839년 7월 11일, 정정혜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포청에서 일곱 번의 심문을 받고 320대의 곤장을 맞았으며, 형조에서도 여섯 번의 심문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런 고통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는 같은 해 12월 29일, 6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때 나이 43세였다.

성화_한혜자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욥기 7,1-4.6-7

화답송 시편 147(146-147),1ㄴㄷ-2.3-4.5-6(◎3ㄱ 참조)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

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2독서 1코린 9,16-19.22-23

복음 환호송 마태 8,17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마르 1,29-39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새 사제 인사 | 김혁빈 안드레아 신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제품을 받은 김혁빈 안드레아 새 신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사제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본당 신부님들, 신학교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제의 길을 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은퇴하시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셔야 하는데, 아들의 신학교 생활을 위해 본인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본당 신부님들은 부족한 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신학교 신부님들은 때로 엄하게 저희를 대하셨지만 저희가 교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양성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신부님께서서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와 힘든 일이 닥칠 때, 제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서품 성구는 **“왜 겁을 내느냐?”(마태 8,26)**입니다. 사제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사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고 그분께 의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주하는 현실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제 뒤에는 언제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 교우분들께 부족한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



새 사제 인사 | 이재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신자분들의 기도를 통해 사제품에 오른 이재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에 앞서 파견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30일 피정을 하면서 제 안에 오직 저만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작은 자리도 없이 모든 시선과 관심을

나에게만 돌리며 오직 내 영광과 안위에 집착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이 성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오직 하느님 나라를 알리며 모든 영광을 구세주께 돌린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비울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품 성구는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데 지침이자 힘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나보다 크신 주님 품에 안겨 그분의 영광을 전하는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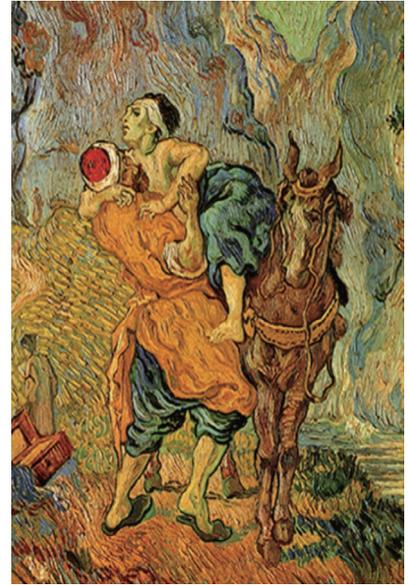
새 사제 인사 | 장원제 안드레아 신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제품을 받는 장원제 안드레아 새 신부입니다. 먼저, 이토록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품 성구로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하느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소아백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치료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여러 번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치 후, 저는 하느님께서 치유해주신 보답으로 많은 분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분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드러내려면, 무엇보다 그분 현존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제만이 중재자로서 주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일생 동안 하느님을 계속 체험하고, 제가 만난 하느님을 매일의 삶을 통해 주변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를 살게 하신 하느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툰 점이 많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신자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사제로서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낮은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새 사제 인사 | 이현우 마태오 신부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사제품을 받은 이현우 마태오 새 신부입니다. 칠삭둥이 같은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했던 시편 저자의 마음으로 사는 요즘입니다.

제가 정한 서품 성구는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이사 58,2)**입니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성경의 본래 의미처럼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제에게 필요한 점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찾고 그분 알기를 갈망하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의미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올바른 길을 걷는 사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제의 삶이다 보면 그 시선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의와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귀를 열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올바른 사제의 삶을 찾고 그 길 알기를 갈망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교구의 막내 신부입니다. 교우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 5,7)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은 80대 남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의 보호자가 방문 전 나에게 ‘환자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역정을 내신다.’고 귀뜸해 주었다. 환자는 원목신부가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간병인이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속을 뒤집어놨다는 이야기부터 사고 당시 가해자의 대응이 안 일했다는 원망과 의료진의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어느새 환자의 이야기는 그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넘어가고 있었다. 환자는 어쩌다 자신의 탓도 조금은 인정하는가 싶다가도 이내 또다시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돌아섰다.

점심 식사를 물러가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환자 덕분에, 하릴없이 점심을 함께 굶으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듣고 있는 내 심정은 안중에 없으시군.’ ‘치매 환자일까?’ 계속되는 환자의 이야기에 지쳐가던 나는 이대로 조금만 더 있으면 환자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끊고 서둘러 방문을 마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오기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늘은 밤을 새우더라도 이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그때부터 나는 의식적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흘려들으면서 그분 입술이 더는 움직이지 않기를 기다렸다.

저녁 식사까지 물리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환자의 목소리보다 내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생각하던 순간, 환자가 ‘휘유우’ 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다물었다. 내가 너무 건성으로 듣고 있어 화가 나셨나 싶어 환자의 눈치를 살피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내게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다. “이제야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주신 분은 신부님이 처음입니다.”

그때까지 그야말로 오기 가득한 태도로 환자와 내심 침묵으로 겨루고 있던 나는 그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놀라고 속이 상해서 남 탓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환자 옆에다 오기로 씩씩거리는 나를 하루 종일 세워두심으로써 환자를 돌보고 나를 가르치셨던 거다.

벧자타 못가에서 물이 출렁거릴 때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부터 쏟아내던 환자에게 끝까지 귀를 기울이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때때로 CPE 학생들의 질문으로 나를 일깨우신다. “환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르면서 배웠던 것을 다시 떠올리며, 이 환자와 나의 주님께 관해 조금은 길어질 이야기를 시작한다. 🍷



6(화) 주교님과 함께하는 신학생·부제 야유회 - 포천

교구장 동정

이번 주 2/4(주일)~10(토) : 루카 4,38-5,16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성경 읽기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2/24(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등부 예비신학생 첫 모임

일시 2/18(주일) 10시~12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교구 소식

2024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의정부본원 저녁반 화·목 19:30~21:40 신앙교육원

남양주본원 오후반 수·금 14:00~16:10 지금동성당

과정 2년제 4학기, 매학기 4과목 (3개월 수업)

신청 2/15(목)까지 [선착순 100명], 홈페이지 참조 (포털 → '신앙교육원' 검색)

등록금 학기당 35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의정부교구 제139차 ME 주말

날짜 2/23(금)~25(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의정부ME

최대환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날짜 2/17(토)~18(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교재 <멘토의 탄생> 프랑수아 드 페늘롱 지음, 강미란 옮김, 푸르메, 2012

주제 멘토를 만나기, 멘토가 되기 참가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2월 불나팔미사 - 정의평화위원회 월례미사

일시 2/7(수) 19: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2/18(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오선곡 악보 (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미사 안내 ▶



미사 · 피정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5일: 2/19(월)~23(금)
이나시오 영신수련 4박5일: 2/19(월)~23(금)
내적여정에너지그램(기본): 2/16(금)~18(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렉시오 디비나 피정 - 양주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원

3박 4일: 2/20(화) 15시 ~ 23(금) 점심 / 24만원
4박 5일: 3/27(수) 15시 ~ 31(주일) 점심 / 30만원
1일: 렉시오 디비나와 첫 토요일 신심미사
3/2(토) 14시~17시 / 1만원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5230-2986
cafe.naver.com/monteoliveto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2/6(화) 맹진학 신부, 2/13(화) 진홍장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 - 입문

일시: 3/9(토) 15시 ~ 10(주일) 13시
장소: 왜관 피정의 집
회비: 8만원 (접수 후 입금)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교구 성지순례 -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 탐방

국내: 4월5(금)~8(화) 제주도, 추자도, 차귀도
4/13(토)~15(월) 수도원, 대구 17곳
4/20(토)~24(수) 울릉도, 독도, 수도원
서울 명동 출발 (대형 버스)
해외: 5/15(수)~27(화) 바티칸, 독일 수도원,
이탈리아(수비아코)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들

매일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2/6(화), 3/5(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덕양구 호수로76-13)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매주교리에 기도 일일피정, 2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매주교리에 기도 일일피정
매주교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 안수(중식무료)
일시: 2/5(월) 10시~16시
2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일시: 2/17(토) 12시~17:30, 미사 안수(중식무료)
※ 설연휴로 토요일 치유 대피정을 17일로
이동합니다.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청년 몸 신학 피정

일시: 3/1(금) 16시 ~ 3(주일)
장소: 마리스타 피정의 집(합정동)
대상: 20세~39세의 미혼 남녀
문의: 010-2804-6523 icpe선교회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6(금)~24(토), 3/16(토)~24(주일),
4/19(금)~27(토)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2/17(토) 10시 풍동 성당
2/17(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 3일: 3/1(금)~3(주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3/23(토)~24(주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4/24(수)~5/3(금)
품 그리기 - 자녀 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장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1,7호선 온수역)
문의: 010-6890-7223

교육 · 모집 ▶▶

사순시기 - 독서 기도 모임

일시: 2/15부터 매주(목) 14시~16:30 [7주간]
장소: 의정부교구청 바오로딸 / 회비: 8만원
문의: 031-875-7004 강 아나뵘 수녀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 (10주) 3/9~5/11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 (300시간) 3/9~10/26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교구청 내 대회의실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c-sjr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 3월 개강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매주(화) 10시~12시 / 최지원 수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1
둘째, 넷째(화) 14시~16:15 / 송봉모 신부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매주(수) 10시~12시 / 홍기령 교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매주(수) 14시~16시 / 김관희 신부
구약성경아카데미 - 욥기 강독:
매주(목) 10시~12시 / 주원준 박사
각 7~12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이콘연구소 제22기 신입생 모집

이콘 제작 및 연구 (3년 과정)
개강: 3/4(월) / 대상: 65세 미만
실기시험: 2/17(토), 19(월) 10:30 [택1]
장소: 이콘연구소 (중구 중림로27 신관 6층)
문의: 02-313-9973

2024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2/16(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일산(여정)성경 2024년 1학기 줌 수업

3/4(월) 20시~22시: 역사서1
3/5(화) 10시~12시: 루카복음, 사도행전
3/5(화) 20시~22시: 모세오경
문의: 010-8352-9986 일산 여정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여성	010-8078-7016
	성심수녀회	2/17(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한국외방선교회	3/3(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부 / 한반도에 머물기 가까운 그대	010-8715-2846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대상: 비행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관심있는 분
남양주, 구리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분
60세 이하 신자

접수: 2/29(목)까지

문의: 031-856-0213~5 교정사목위원회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추가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14(수)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봄학기 모집

접수 및 등록: 2/1(목)~23(금)까지

3개월 수업(3월~5월)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 반주, 성악·합창지휘·작곡·
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그레고리오성가·성악·플루트·현
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서울역, 중정로역)

문의: 02-393-2213, www.casm.co.kr

가톨릭교리신학원 영성강좌(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강좌: 미사 전례 성가

일시: 3/7~6/13, 매주(목) 15:50~17:30

강사: 박민식 미카엘

수강료: 한 학기 10만원 (개강 당일 접수)

문의: 교무과 02-747-8501, ci.catholic.ac.kr

한마음수련원 사순 특강 <내적인 삶>

일정: 2/21부터 매주(수) 14시 [총 4회]

2/24부터 매주(토) 16시 [총 4회]

접수: 2/18(주일)까지, 회비: 총 4만원

1강- 사순시기 영적인 단식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

2강- 깨어있는 삶을 통한 영적인 변모

3강- 영적인 투쟁과 영혼의 정화

4강- 일치를 위한 포기 [매강의 교차 출석 가능]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선교아카데미 13기 교육생 모집

날짜: 3/7~10/17, 매주(목)

장소: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서울 성북동)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비용: 95만원 (식대 포함)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땅끝 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3~4월 봄(1)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3/4(월)~6(수) 강좌별로 상이함

수강료: 32만원

수업: 주2회(문법, 회화) 8주, 총 30시간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 scec.sogang.ac.kr

결혼이주여성 친정언니 만들기 멘토 모집

파주 EXODUS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상: 5~8지구 거주 35세 이상 62세 미만의
선주민 기혼여성

교육: 3/2부터 매주(토) 10시~12시 [총 3회]

문의: 031-948-8105 멘토링 담당자 (금,토 휴무)
cafe.daum.net/nwpeace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11(월)~21(목) 동부유럽 (480만원)

3/16(토)~21(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4/22(월)~5/3(금) 동부유럽, 발칸반도 (510만원)

5/17(금)~29(수)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7(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1/4(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눈꽃산행: 2/23(금)~25(주일)

자연순례: 3/8(금)~10(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2/16(금)~19(월), 3/15(금)~18(월),
4/5(금)~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한티 가는길

1차: 3/21(목)~23(토) 2차: 4/10(수)~12(금)

3차: 5/6(월)~8(수) 4차: 6/6(목)~8(토)

5차: 9/25(수)~27(금) 6차: 10/10(목)~12(토)

7차: 11/25(월)~27(수)

장소: 왜관 피정의 집, 연화리 피정의 집(3차, 6차)

회비: 25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시간: 월~금 10시~16시 / 상담: 02-990-9366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4/17(수) 발칸 메주고리에 (429만원)

5/13(월) 나가사키 성지순례 (139만원)

5/13(월) 스페인북부, 포르투갈, 루르드 (46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고난회 성지순례

감사 -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시: 5/22(수) 07:30 ~ 24(금) 18시

장소: 서울 출발→광주 명상의집

회비: 36만원 (1인 1실)

문의: 062-571-5004, 010-4402-8014

모임

제30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짝궁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3/8(토) 19시~10(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공연

피델리스 제13회 정기연주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의 정기연주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2/24(토) 19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문의: 010-8419-0073



성인 호칭 기도 (Litaniae Sanctorum)

성인 호칭 기도는 라틴어 [리타니아] (*Litaniae*)라고 부르는 ‘호칭 기도’ 중 하나입니다. 지난 1월 31일에 거행된 사제·부제 서품식에서도 성가로 불린 기도지요.

호칭 기도는 사제나 부제 또는 성가대가 선창하고 신자들이 응답하는 형태의 기도입니다. 「가톨릭 기도서」〈제3편 호칭 기도〉에는 ‘성인 호칭 기도’뿐 아니라 ‘예수 성심 호칭 기도’ ‘성모 호칭 기도’ ‘성 요셉 호칭 기도’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 ‘124위 한국 순교 복자 호칭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 호칭 기도’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 호칭 기도’도 있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는 크게 5부분으로 이뤄집니다. (때로 일부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 ① 첫 대목은 자비송(*Kyrie*)으로 시작됩니다.
- ② 이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르고,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응답합니다.
- ③ 그리고 성인들을 부르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호칭은 [성모님]-[천사]-[성조와 예언자]-[사도와 제자]-[순교자]-[주교(증거자)와 학자]-[성직자와 수도자]-[평신도]-[한국 성인] 순이며,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모든 성인”을 부릅니다. 이때, 모든 호칭에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Ora pro nobis*)라고 응답합니다.
- ④ 그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구원을 청하면, “주님, 저희를 구원주소서”(*Libera nos, Domine*)라고 응답합니다.
- ⑤ 끝으로, 구체적인 내적 외적 평화를 간청하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Te rogamus, audi nos*)라고 응답합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기도로 끝맺습니다.

서품식에서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는 동안, 서품 대상자들은 땅에 엎드려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 순간, 온 공동체는 그들이 앞으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인들에게 간구하면서 그분들의 성덕을 기리고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 서품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서 살아갈 새 신부님과 부제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자

- 3일: 이규홍 마태오
- 5일(아가다): 이윤분, 조정자, 선길자, 윤덕봉, 박복순, 장순미, 이은정
- 6일(도로테아): 홍경순, 허경욱

전례

■ 설 합동 위령 미사

2월 10일(토)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오늘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합동 위령 미사 시간: 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설 연휴 끝날인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학생 학비 후원 2차 현금

다음 주일에는 의정부 교구 신학생들의 학비 후원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금육과 단식)

2월 14일 재의 수요일에 참된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예절에 사용될 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나누어 드린 성 가지를 본당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구유예물 교구 청소년 밥집 전액 후원

2023년 성탄 구유예물 1,931,000원 전액을 교구 청소년 밥집 포이마이노에 후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월 22일 ~ 1월 28일)

■ 교무금, 주일헌금, 2차헌금

교 무 금	4건	520,000원
주 일 헌 금		709,000원
해외 원조 주일 (2차)		496,000원

감사헌금

이동준	200,000원	최성운	10,000원
김미숙	30,000원	이병수	40,000원
유정규	10,000원	임진모	1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2월 04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김순곤(라자로), 이경예(마르타)
2월 11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 복음 말씀 -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